

“지하철 내 선반설치, 행선지 표기 변경… 시민불편 줄여야”

서울시 ‘상상대로 서울’ 건의 접수
“교체중 신조전동차에 선반설치
이미 운행중 차량, 중장기 검토”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열차 내 선반 설치, 행선지 표기 방식 변경, 신분당선 서북부 대안 노선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정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는 지하철 2호선 안에 선반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접수됐다.

서울 소재 학교에 등하교하면서 2호선을 자주 이용한다고 밝힌 대학생 이모씨는 “항상 느꼈지만 2호선에는 선반이 달려 있지 않아 짐이 많을 때 지하철을 타기 불편하다”면서 “선반이 없는 열차가 많아 짐을 편히 올려놓지 못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을 많이 봤다”고 밝혔다.

이어 “저 역시 학교 준비물 때문에 들고 가야 할 짐이 많은 경우 있으나 서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 모습.

/김현정 기자

짐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다”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2호선 열차에 선반을 설치해줄 것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했다.

시는 “선반 미설치 전동차 운영 과정에서 재설치를 요청하는 승객들의 민원이 발생해 현재 교체 중인 신조 전동차에는 1칸당 2개소 기준으로 선반이 설

치되고 있으며, 향후 도입될 차량들도 같은 기준으로 선반이 설치돼 운영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시는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의 개조·개량은 작업 대상 전동차를 열차 시간표에서 제외해 생기는 열차 운전 시격 및 이용객 밀집도 증가 등 불편 발생과 선반 설치 비용 추가 소요 등의 사유

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교통공사에 재직 중인 서모씨는 5호선에서 근무하며 보는 가장 흔한 승객 실수는 열차 방향을 혼동해 타는 것이라며, 분기역인 강동역부터는 하남검단산행과 마천행을 구분하기 쉽게 5-A, 5-B를 병기할 것을 제안했다.

서씨는 “다른 지하철 노선은 승차해 가다가 종착역인 경우 내렸다가 그 역에서 다시 타면 되는 시스템이지만 5호선은 단일 호선으로 강동역에서 마천행과 하남검단산행으로 두 갈래로 나뉘는데 2개의 노선 모두 5호선이고, 보라색으로 동일하게 표시돼 타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외국인들도 알아보기 쉽게 5호선을 두 개로 분류해 5-A호선(하남검단산행), 5-B호선(마천행)으로 표시하면 시가 목표토 세운 관광객 3000만 명 달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민들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넘지 못하자 ‘상상대로 서울’에 다양한 대안 노선을 제안했다.

청원자들은 3호선, GTX-A 라인과 중복되지 않게 변경하면서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을 관통하도록 해 경제성을 높이는 노선, 서울시 1호 뉴타운을 지나 는 은평뉴타운선 등을 제시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용산에서 은평구를 거쳐 고양 삼송까지를 연결하는 19.38km의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했지만, 낮은 경제성으로 올해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좌초됐다.

시 교통정책과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사업은 금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노선으로 재추진하는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라면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대안을 검토·발굴해 새로운 노선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동대문 답십리, 서대문 홍제동에 ‘모아타운’ 경기도, 폐기물처리사업 운영 ‘전국 1위’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2곳 추가
내일 총 4곳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

서울시는 이달 4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2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시는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노후한 다

세대·다가구가 밀집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던 지역”이라며 “또한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된 후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를 신청한 대상지 ▲강동구 천호동 401-1 ▲강동구 둔촌동 622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총 4곳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시는 전체 모아타운 대상지 81곳 중 관리계획이 완료돼 고시된 지역이 작년 4곳에서 올해 34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생활폐기물 발생량 등 3개 분야 만점

경기도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2023년 폐기물 처리사업 운영실태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폐기물 처리사업 운영실태 평가’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자립률,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4개 분야 생활폐기물 처리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총점 92점으로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특히 생활폐기물 발생량, 최종처분율과 순환이용률 3개 분야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경기도는 그간 폐기물 감축, 재활용 우선 정책, 폐기물처리시설 적기확충

등 자원순환분야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경기도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9년부터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깨끗한 경기 만들기 사업(5개 분야 3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의 자원순환분야 정책발굴을 위한 평가를 통해 폐기물 선진 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 시군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는 정책으로 공유해 활용되고 있다.

2021년 전국 최초로 배달앱 대화용기 사업을 추진해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장례식장과 지역축제, 공공시설로 범위를 넓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 사회적약자 범죄예방 총력

서울경찰청과 지키미 보급

서울시는 5일 오전 10시 서울시장에서 서울경찰청과 여성, 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안심세트 지키미(ME)’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키미’ 지원과 배부 ▲이상동기 범죄와 같은 위험 상황 예방을 위한 정보 교류 ▲안전한 서울 구축과 관련한 정책 마련 및 공동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안심 물품을 지원한다. 서울경찰청은 범죄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를 선정해 물품을 보급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이어 서울광장에서 ‘휴대용 SOS 비상벨’ 현장 시연회가 열렸다. 시연은 ‘범죄 발생→휴대용 SOS 비상벨 작동→문자전송 및 112신고→경찰 출동’ 순으로 진행됐다.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로 구성된 ‘지키미’는 이달 말부터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서 배부된다. 지원 대상은 성범죄·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이다.

/김현정 기자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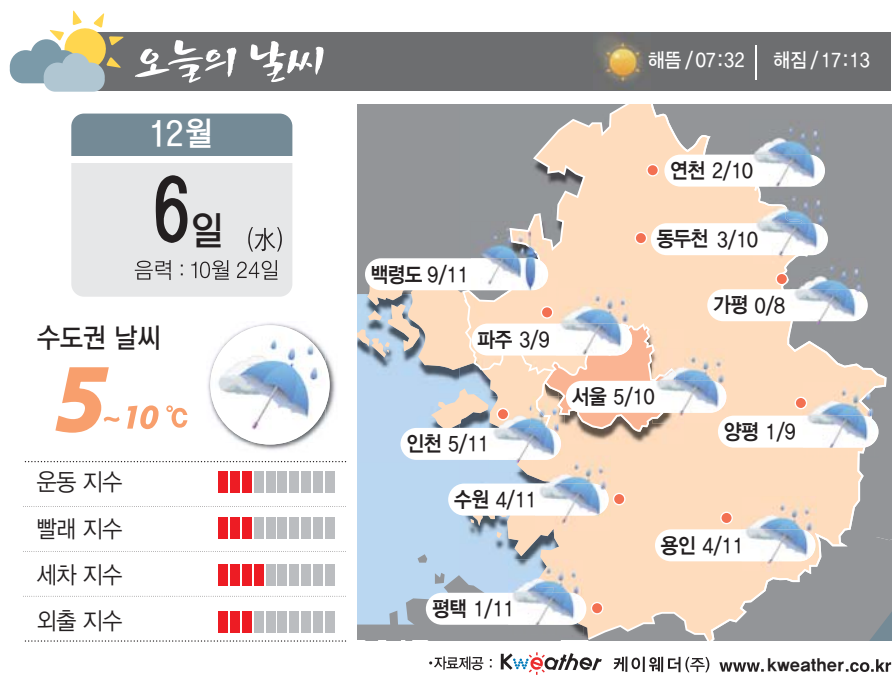
서울시, 20일 서소문1청사서 개최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청회는 오는 20일 오후 3~5시 서소문1청사 후생동 4층에서 열린다.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 정책 실험 결과가 공유되고, 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 및 토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혼잡통행료와 관련된 의견은 이메일(jinee73@seoul.go.kr), 팩스(02-2133-1048), 우편(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7층 교통정책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비트코인 4만 2000달러 돌파...국가 화폐 정한 엘살바도르 ‘흑자’ /사진 뉴시스
▲ 중국·러시아 해커그룹에 영국 원자력발전소 해킹설...정부 부인

▲ 중국 택배 거래량 연 1200억건 넘어서
▲ 미국 락스타게임즈, 인기 게임 GTA 차기작 영상 조기 공개



▲ 영국 대여한 판다 2마리, 특별 전세기 타고 고향 중국으로 /사진 뉴시스
▲ 미국, 홍해 통과 선박 보호 위한 해군 태스크포스 구축